

HIF월간 산업 이슈(07월)

Monthly Industrial Issue

업종별 주요 이슈

산업 공통 팬데믹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

- 팬데믹 이후 수급 불균형으로 급등한 국제 원자재 가격은 하반기에도 주요 국가의 수요 회복 및 공급 제한 정책 등에 따라 강세를 지속할 전망
- 특히 금속가격 급등으로 금속가공·건설·자동차·조선 등의 전방산업 원가율 상승이 우려되는데, 최근 건설 및 조선산업 경기가 회복 추세로 원가 상승을 제품가격에 반영 가능한 대기업의 영향은 제한되나, 판가 인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

정유 OPEC+ 증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정유업계 실적 회복은 난망

- 최근 OPEC+가 증산 합의에 도달했으나 공급부족 해소에는 역부족으로 하반기에도 유가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감소, 가격 하락 등으로 정유사 실적 악화 예상
- 정유업을 둘러싼 대외환경 리스크가 높아진 만큼 중동 정세 변화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유사의 추가 실적 악화가 우려

화학 석유화학 업계, 폐자원 업사이클링 등을 통한 친환경 전환 가속화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장기 성장성 확보를 위해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및 연료화 등 친환경 사업을 확장에 나서고 있음
- 친환경 대응이 화학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수익성, 안정성 외에도 친환경 사업 전환 의지 및 기업의 대응 전략이 중요해질 전망

철강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발표로 현실화되고 있는 철강산업의 환경세 부담

- 지난 7월 14일 EU가 'Fit for 55' 계획을 통해 탄소 다배출 산업 5개(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에 대해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겠다고 발표.
- 향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이 본격화될 경우 對EU 수출 규모가 크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산업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탄소 배출량이 큰 고로사의 타격이 가장 클 전망

반도체 칭화유니 파산과 중국 반도체 굴기

- 7월 11일 칭화유니의 채권자 휘상은행이 당국에게 파산을 신청하며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인 칭화유니와 미국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반도체 굴기는 중차대한 위기에 봉착
- 대중 수출 확대 및 중국의 한국 반도체에 대한 추격 지연으로 국내 기업은 수혜가 예상되나, 대중 투자를 두고 미중 양자택일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향후 주의가 필요한 시점

■ 건설 ■ 건설 원자재 부족 당분간 이어질 전망

- 건설수주 및 착공 증가 등 건설 원자재 수요는 최근 급증했으나 공급측의 다양한 사정으로 이에 대한 응대가 늦어지면서 건설현장의 원자재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중
- 국내 원자재 공급 역량은 양호하나 가격 인하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원가 부담에 따른 영업이익 하락 등의 충격이 우려됨

■ 유통 ■ 한국과 미국의 이커머스 상위 3사 비교

- 한국과 미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라스트마일을 위한 풀필먼트(쿠팡, 아마존), 온라인몰 창업 솔루션(네이버, 쇼피파이), 옴니채널(이마트, 월마트)의 특성을 보유한 3사가 상위권을 형성
 - 국내 상위 3사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 강화를 위한 투자 경쟁과 물류 비용 증가로 인해 저조한 수익성이 지속될 전망
-

산업별 경기 트렌드

경기사이클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C10-11. 음식료품	음식료				●		
C13. 섬유	섬유		●				
C14. 의류	의류						●
C19. 정유	정유	●					
C20-21. 화학제품	석유화학				●		
	제약				●		
C22. 고무,플라스틱	고무,플라스틱	●					
C23. 비금속광물	시멘트						
C24. 1차 금속	철강			●			
	비철금속			●			
C26.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 등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통신장비(휴대폰)			●			
C29. 기계	일반기계		●				
C30. 자동차	자동차			●			
C31. 가전·운송장비	조선		●				
D.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				●		
F. 건설	건설						●
G. 종합유통	무점포(온라인)			●			
	종합소매업(대형)		●				
	편의점		●				
H. 숙박 및 음식점	숙박(N/A)		●				
I. 운수	해상운송		●				
	항공운송	●					
J. 통신,미디어	통신서비스			●			
	SW/SI			●			
L. 부동산 및 임대	부동산						●

산업 이슈

산업 공통 : 팬데믹 이후 원자재 가격 등급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

정유 : OPEC+ 중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정유업계 실적 회복은 난망

화학제품 : 석유화학 업계, 폐자원 업사이클링을 등을 통한 친환경 전환 가속화

철강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발표로 현실화되고 있는 철강산업의 환경세 부담

반도체 : 칭화유니 파산과 중국 반도체 굴기

건설 : 건설 원자재 부족 당분간 이어질 전망

종합유통 : 한국과 미국의 이커머스 상위 3사 비교

산업 일반 팬데믹 이후 원자재 가격 등급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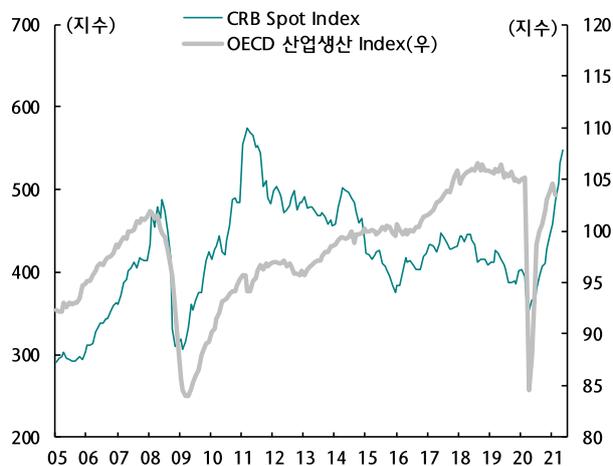
※ **Summary** : 팬데믹 이후 수급 불균형으로 급등한 국제 원자재 가격은 하반기에도 주요 국가의 수요 회복 및 공급 제한 정책 등에 따라 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슈퍼 사이클의 가능성은 낮고, 내년 이후 수급불안 해소 및 투기수요 둔화 시 가격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금속가격 급등으로 금속가공·건설·자동차·조선 등의 산업은 원가율 상승이 우려

※ **Comment** : 국내 건설 및 조선산업 경기가 회복 추세인 가운데, 원가 상승을 제품가격에 반영 가능한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나 평가 인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 팬데믹 이후 산업경기 회복과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고 유동성 환경 하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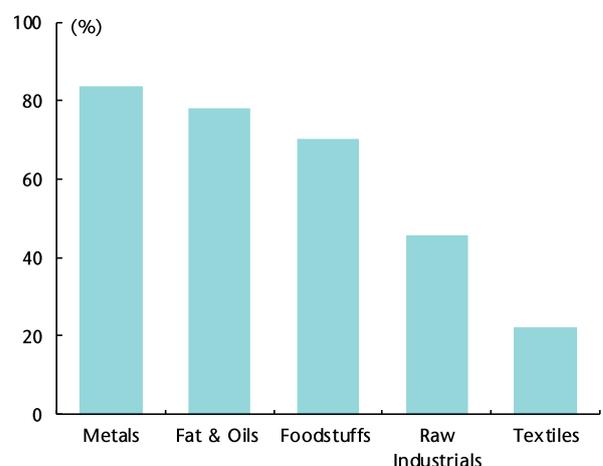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재정 확대 정책 및 공급망 이슈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하면서 2012년 이후 최고점을 경신
 - CRB Spot 지수가 2020년 4월을 저점으로 상승 전환하여 12월까지 25% 상승했고, 2021년 들어서는 더욱 가파른 상승 추세를 시현하면서 2012년 이후 최고점을 기록
- 원자재 섹터별로 살펴보면 원유 등의 에너지지수 대비 산업자재로 활용되는 금속과 곡물의 가격이 더욱 큰 폭으로 상승
- 자연재해 및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문제(브라질 광산 생산 차질 등), 호주-중국 간 갈등에 따른 중국의 철광석 사재기 이슈 등에 따라 철광석, 철강, 구리 등의 산업금속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급등

그림01 | 국제 원자재 가격 지수와 산업생산 지수 추이



자료 : Korea PDS

그림02 | 원자재 섹터별 가격 상승률



주 : 2021년 5월말 기준으로 2020년 저점 대비 상승률
자료 : Korea P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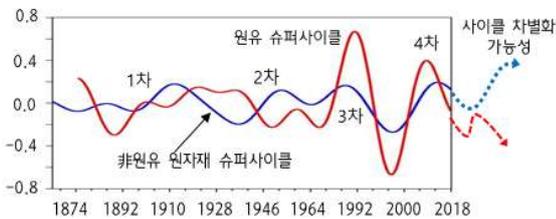
■ 2021년 하반기에도 주요 국가의 수요 회복 및 공급 제한 정책 등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지속될 전망

- 국제 원자재(산업금속) 가격은 하반기까지 미·중 등 주요 국가의 산업경기 회복 추세와 공급 제한정책에 따라 타이트한 수급(낮은 재고)이 유지되면서 강세를 지속할 전망
-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 기조 지속 및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중국의 환경오염 산업 규제에 따른 철강 생산 및 공급 제한 정책(5월 철강산업 생산 및 교환 제한 지역 확대) 등이 산업금속 가격 강세를 지지
- 유가의 경우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이동제한 완화, 주요국 경기부양에 따른 석유 수요 증가 등의 상승 요인이 지속되나, 원유 공급 확대(OPEC+감산 축소, 美원유 증산),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 하락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추가 상승 제한적

■ 다만, 슈퍼 사이클의 가능성은 낮고, 내년 이후 수급불안 해소 및 투기수요 둔화 시 가격 안정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그린뉴딜 수요 확대에 강세가 기대되는 상품은 존재

- 내년 이후에는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등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호주-중국 간 갈등, 선박 부족에 따른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서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
- 중장기적으로는 그린경제 전환 속에 원유와 일부 원자재 간 수요 차별화가 예상되는데, 원유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그린 인프라 및 전기차 등의 핵심 원자재 수요는 견조
 - 친환경·디지털화 등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재생에너지 핵심 원자재(구리, 니켈, 망간, 실리콘 등) 및 전기차 핵심 원자재(구리, 니켈, 리튬, 희토류 등)의 수요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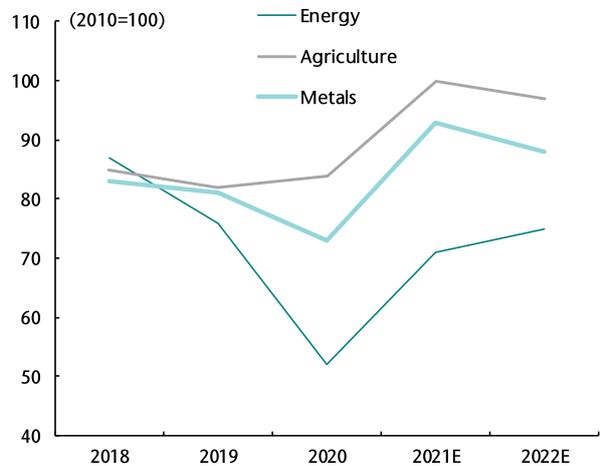
그림03 | 원자재별 슈퍼사이클 추이 및 기간



	1차	2차	3차	4차
원자재(非 원유)	1894~1932	1932~1971	1971~1999	1999~
금속	1885~1921	1921~1945	1945~1999	1999~
농산물	1894~1932	1932~1971	1971~1999	1999~
원유	1892~1947	1947~1973	1973~1998	1998~

자료 : Erten-Ocampo(2021) "The future of commodity prices and the pandemic-driven global recession"

그림04 | 원자재 섹터별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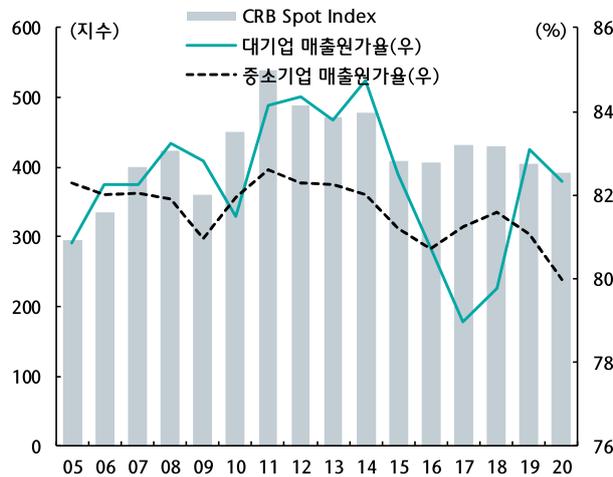


자료 : World Bank(2021) "Commodity Markets Outlook"

■ 최근 금속가격 급등으로 금속가공·건설·자동차·조선 산업의 원가율 상승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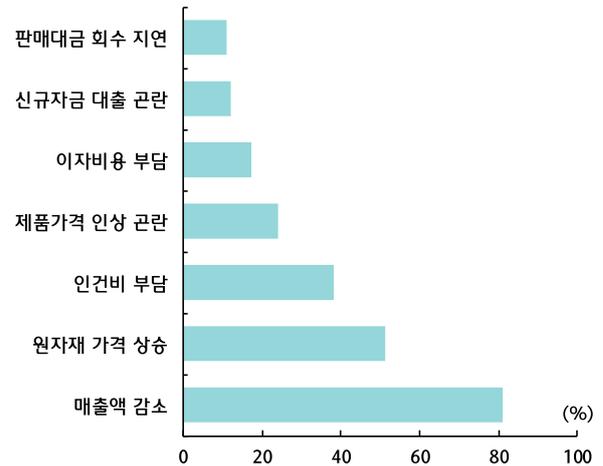
- 원재료 및 제품가격 강세는 시장 성장을 견인하나, 수요 부진 시 원가율 상승 및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
- 산업금속(철강·구리 등) 가격 급등 시 건설·자동차·조선·IT가전 등의 산업은 원가율 상승에 따라 수익률 하락 리스크에 노출
 - 최근 건설사는 철근가격 급등과 제품 품귀 현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조선사의 경우 선박 원가의 20~30% 정도를 차지하는 후판가격 급등 시 수익이 크게 악화
- 최근 국내 건설 및 조선산업 경기가 회복 추세인 가운데, 원가 상승을 제품가격에 반영 가능한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나 판가 인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
 - 1차금속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가공하여 건설·자동차·조선·IT가전 업체에 판매하는 금속가공업의 경우 영세업체로 가격협상력이 낮고, 제품 원가율이 80% 이상으로 높아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
- 한편, 유가 강세 시 가격 전가가 용이한 정유·석유화학 산업은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반면, 플라스틱 제조업의 경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확대로 운영난이 심화되며, 해운·항공업의 경우도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가로 부정적 

그림05 | 국제 원자재 가격과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원가율



자료 : Korea PDS,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06 | 2021년 중소기업의 자금난 주요 원인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 자금사정 동향 조사

표01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산업별 영향 검토

	음식료	정유	석유화학	플라스틱	철강	금속가공	조선	자동차	건설	해운	항공
산업금속	△	△	△	△	◎	●	●	●	●	△	△
원유	△	◎	◎	●	△	△	△	△	△	●	●
곡물	●	△	△	△	△	△	△	△	△	△	△

주 : ◎ 긍정적, △중립, ●부정적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C19. 정유 : OPEC+ 중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정유업계 실적 회복은 난망

※ **Summary** : 최근 사우디와 UAE의 갈등 해소로 OPEC+는 중산 합의에 도달했으나 실제 중산량이 원유 공급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하반기에도 유가 강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 우려로 주요 석유제품의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결국 하반기에도 정유사의 정제미진은 BEP를 하회하는 배럴 당 1~2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정유사의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Comment** : 정유업을 둘러싼 대외환경 리스크가 높아진 만큼 중동 정세 변화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유사의 추가 실적 악화가 우려되므로 보수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

■ 사우디와 UAE 간 갈등으로 OPEC+의 중산 결정이 번복되는 등 중동발 원유 공급 리스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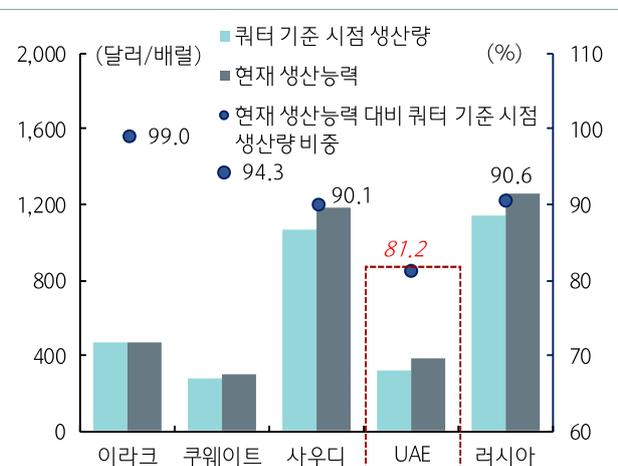
- 지난 7월 5일 개최 예정이던 OPEC+의 정례회의가 취소되면서 참여국들이 잠정 합의했던 ① 21년 12월까지 매월 40만 b/d씩 감산 축소, ② 22년 4월까지 예정된 감산 협의를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한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
- 이는 정례회의에 앞서 UAE가 참여 국가별 감산 쿼터 기준선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했으나 사우디가 이를 거부하자 UAE가 OPEC+의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 UAE는 감산량 기준 시점(18년 10월) 이후, 원유 생산능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현재 유희 생산 Capa가 30%(OPEC+평균 16%)에 달하고 있어, OPEC+의 감산이 연장된다면 자국 쿼터에 대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이에 사우디는 형평성 문제로 개별 국가의 생산쿼터를 상향 조정할 수 없고, 전 회원국의 생산쿼터 재할당 또한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이를 거부
- 외신들은 이번 회의 결렬 이면에는 이미 2~3년 전부터 예멘전, 이스라엘과의 외교, 경제 주도권 등의 문제로 불거진 사우디와 UAE 간 신경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

표02 | 사우디와 UAE의 최근 갈등 상황

시점	갈등 원인
2019년	• 사우디와 UAE가 함께 참여한 예멘 내전에서 UAE가 철수
2020년	• UAE는 미국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국교 정상화
2021년	• 사우디, 중동 사업 근거지를 UAE 두바이에서 사우디 수도 리야드로 이전하라며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을 압박
2021년	• 사우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UAE에 대한 출입국을 전면 금지

자료 : 언론자료 정리

그림07 | OPEC+의 생산능력 대비 감산 기준 시점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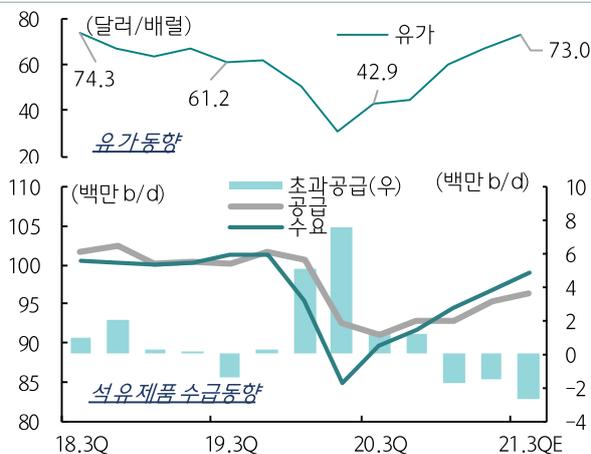
주: 감산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2018년 10월
자료 : 페트로넷

- 결국 지난 18일 사우디가 유가 안정 및 세계 원유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UAE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양국 분쟁은 종료되었고, OPEC+은 8월부터 연말까지 산유량을 매달 일평균 40만 배럴씩 늘리는 방안에 합의
 - UAE는 생산량 기준선을 일평균 316만 배럴에서 350만 배럴로 상향하기로 결정. 그 외 사우디와 러시아도 일평균 50만 배럴씩, 이라크와 쿠웨이트도 일평균 15만 배럴씩 생산 기준선을 상향

■ 다만 OPEC+의 증산량이 원유 공급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하반기 유가 강세는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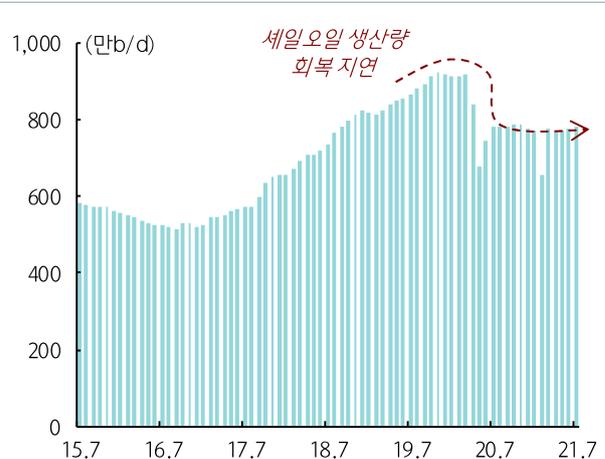
- 국제 유가는 OPEC+ 회의가 결렬된 직후 지난 3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인 배럴 당 76달러 (7월 6일, Dubai 기준)까지 상승하였고, 최근 증산 합의로 다시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배럴 당 70달러 대의 강세가 지속 중
- 여기에 백신 접종 확대와 7~8월 선진국의 휴가 시즌 도래로 하반기 원유 수요가 상반기 대비 최소 300b/d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 초과 수요 확대 가능성이 높아짐
 - 석유 초과공급량 (백만 b/d): 7.6('20.2Q) → 1.2('20.4Q) → -1.7('21.1Q) → -1.5('21.2Q) → -2.6('21.3QE)
- 또한 현재 유가가 셰일오일 생산의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추업체들이 성장보다는 부채 상환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다,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증산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美 셰일오일 생산량은 '19년 920만 b/d에 달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년 5월 670만 b/d 까지 감소 후 21년 들어 770~780만 b/d에서 정체 중
- 따라서 현재 OPEC+의 증산 합의로 원유 공급량이 증가하더라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유가의 추가 상승을 완화하는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임

그림08 | 글로벌 석유 수급과 유가 현황 및 전망



주 :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자료 : Kis-value

그림09 | 미국 셰일오일 생산 추이



자료 : E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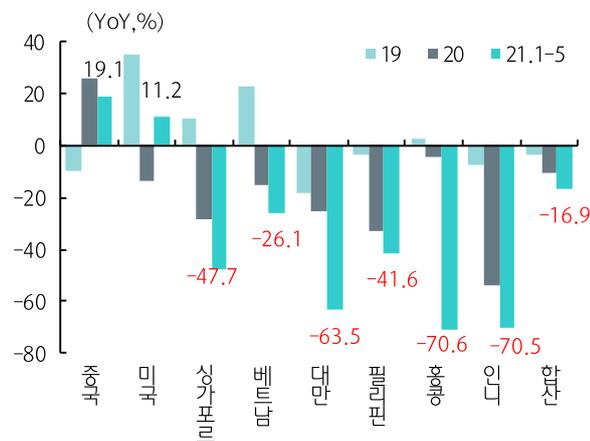
■ 하반기 유가 강세 속에서 국내외 석유 수요 회복 지연으로 정유사의 수익성은 다시 악화될 우려

-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기대, 원유 공급 부족으로 유가 강세가 예상되나, 운송 부문의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주요 석유제품의 가격은 약세가 예상
 -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어 있어 운송유 수요 부진
- 여기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팬데믹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어 석유제품의 수요가 추가로 감소할 우려도 존재
 - 특히 백신 보급이 부진한 아시아 지역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21년 1-5월 베트남, 인니, 필리핀, 대만 등으로의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동기비 큰 폭으로 감소
- 또한 현재 국내 석유제품 비축분 감소로 1~2개월 내 높은 가격으로 원유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하반기에도 정제마진은 배럴 당 1~2달러 수준에 그칠 전망
- 국내 정유사들은 1분기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평가 이익 확대로 실적이 개선되었지만, 하반기에는 유가 강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진으로 인한 판매 위축, 가격 약세로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

■ 금융사는 정유업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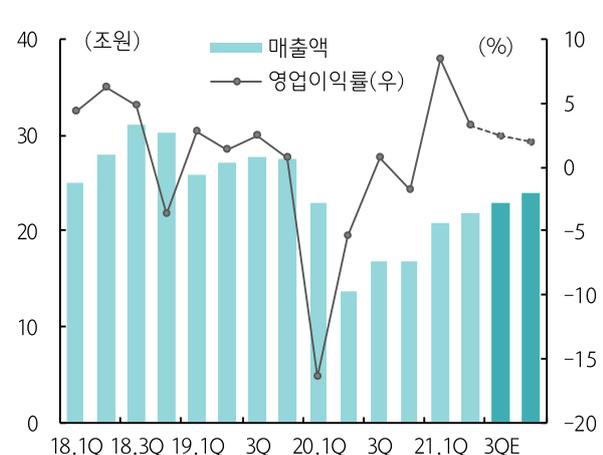
- 사우디와 UAE 양국 간 합의로 8월 중 OPEC+ 증산을 단행할 전망이나, 증산 규모가 크지 않고 미국의 증산도 지연되고 있어 실제 유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 9월 OPEC+ 정례회의를 앞두고 갈등 재점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공급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
- 한편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재 확산되어 다시 이동 제한이 강화될 경우 석유 제품 수요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요측 리스크도 높은 것으로 판단
- 금융사는 정유업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리스크가 높아진 만큼 중동 정세 변화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보다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 

그림10 | 국내 석유제품의 국가별 수출 동향



자료 : Kita

그림11 | 국내 정유사 합산실적



자료 : Kis-value

C20-21. 화학제품 : 석유화학 업계, 폐자원 업사이클링을 등을 통한 친환경 전환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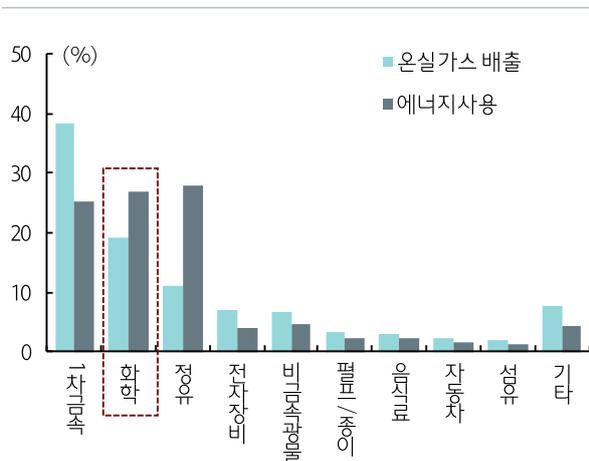
※ **Summary**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장기 성장성 확보를 위해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및 연료화 등 친환경 사업을 확장 중. 특히 SK는 폐플라스틱을 연료화 하는 사업을 시작하며 관련 기업 인수, 대규모 투자 단행 등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 그 외 효성, 롯데, GS 등이 폐플라스틱을 물리적으로 처리해 의류, 생활용품 등으로 재활용하는 선순환체제를 구축

※ **Comment** : 친환경 대응이 화학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금융사는 석유화학 기업 검토 시 수익성, 안정성 외에도 기업의 친환경 사업 전환 의지 및 대응 수준을 살펴볼 필요

■ 최근 석유화학 업계에 폐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 확대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철강에 이어 두 번째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장기 성장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사업을 확장 중
 - ESG가 고려되지 않는 사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거나, 고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ESG 경영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
 - ※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탄소배출 비중 : 1차 금속 38.2%, 석유화학 19.0%, 정유 10%, 전자 7%
- 석유화학산업은 탄소배출이 큰 산업이지만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석유를 원료로 제품을 만들고 있어 친환경 소재 개발 및 재활용 여부에 따라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
 - 석유화학 기업들은 ① 폐플라스틱 등 폐자원의 재활용, ② 화학적 분해 과정을 통한 원재료나 에너지원 추출, ③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소재개발 등에 집중
 - ※ 기업들은 단순 재활용보다는 순환경제를 강화하고 사업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주력

그림12 | 국내 산업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비중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표03 | 국내 화학기업의 친환경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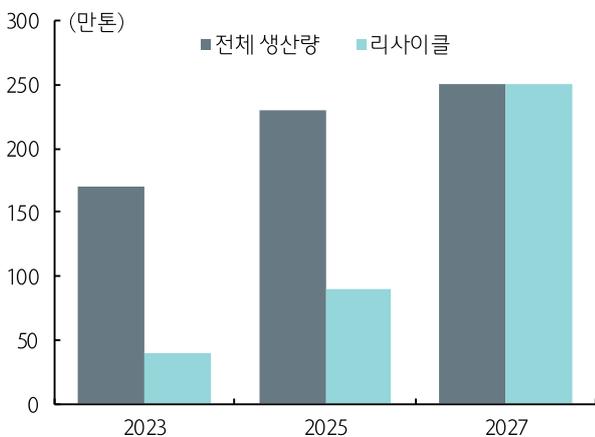
대응방안	내용	기업
플라스틱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플라스틱에 물리적 처리를 거쳐 의류 등 생활용품으로 재활용 • 폐플라스틱에 다양한 재료를 혼합하여 복합수지로 재생산 	효성, GS 롯데케미칼 등
화학적 분해를 통한 원재료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 기술로 분해하여 원재료인 나프타로 재생산 -열로 분해 후 원료를 추출하므로 플라스틱 종류에 구애받지 않음 	SK종합화학
분해가능 플라스틱 소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 PBAT 등 자연에서 분해되는 플라스틱, 100% 바이오 원료인 플라스틱 소재 개발 	LG화학 롯데케미칼 코오롱디스플레이 등

자료 : EBN화학뉴스 등 언론자료 정리

■ 국내 기업 중 SK가 국내외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플라스틱 관련 친환경 비즈니스모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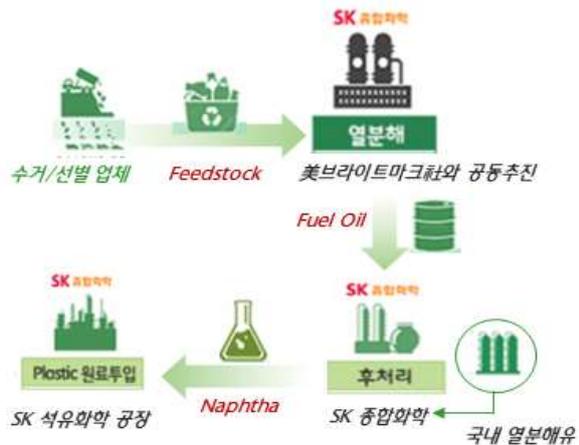
- SK는 ‘탄소 사업에서 그린 중심 사업’으로 회사의 정체성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폐플라스틱을 다시 석유로 만드는 도시유전’ 사업 모델을 도입할 계획
 - 주요 내용은 2027년까지 국내외에서 생산하는 플라스틱 100%(연간 250만 톤 이상)를 재활용 하고, 재활용 가능 친환경 제품 비중 100% 달성을 추진
 - ※ 플라스틱은 제조과정에서 온실가스는 철강보다 낮으나 배출하나 재활용률이 12%(철강 85%)로 매우 낮은 편
- 이를 위해 SK종합화학은 25년까지 6,000억원을 투자해 울산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신설 공장에는 플라스틱 선순환 체계 완성을 위해 화학반응을 통한 열분해1)·해중합 방식2)을 도입할 예정
 - 지난 7월 8일 SK종합화학은 울산시와 '폐플라스틱 자원순환사업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
 - 2025년 까지 캐나다 루프인더스트리와 협력해 연간 8.4만 톤 규모의 해중합 설비 구축, 2040년까지 미국 브라이트마크와 협력해 연간 10만톤 규모의 열분해 설비 구축 예정
- 이에 앞서 SK그룹은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해 기술경쟁력을 갖춘 북미 기업, 일본기업, 국내 기업과의 사업제휴 및 지분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옴
 - 올 들어 美페비닐 석유기업 브라이트마크와 캐나다 해중합 기업 루프인더스트리와 사업제휴 체결 및 지분 투자를 진행, 국내 최대 페비닐 석유기업 에코크리에이션에도 지분 투자를 진행

그림13 | SK종합화학의 플라스틱 리사이클 계획



자료 : SK종합화학

그림14 | SK종합화학의 열분해유 생산 공정 도식표



자료 : SK종합화학

1) 열분해 기술은 폐플라스틱을 열로 분해한 뒤 원료를 추출해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납사로 재활용하는 기술

2) 해중합 기술은 플라스틱 분자의 중합을 해체해 기초 원료물질로 되돌리는 기술

■ **효성, 롯데, GS 등은 폐플라스틱을 물리적으로 처리해 의류, 생활용품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 효성은 효성티앤씨를 통해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친환경 기능성 섬유를 만드는 ‘리젠’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의류브랜드 노스페이스, 플리즈마마의 의류 및 가방 등에 적용
 - 효성티앤씨는 제주, 서울, 여수, 부산 등 각 지역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각 지역으로부터 원활하게 페트병을 수거하여 원료로 이용 중이며, 최근에는 어망을 재활용한 상품도 출시
- 롯데케미칼은 플라스틱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프로젝트 루프(폐 PET 수거→ 원료화→ 가공→ 제품)’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운동화, 에코백, 가방 등이 출시되어 판매 중
 - ‘프로젝트 루프’는 롯데케미칼이 임팩트스퀘어(사업코디네이션), 수퍼빈(AI PET 수거 로봇), 금호섬유공업(페트병 분쇄 및 원료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원사, 원단 제조), LAR(제품 제조)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업과 협약
- GS칼텍스는 국내 정유사 중 유일하게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복합수지를 생산중이며, 최근 플라스틱 공병의 체계적인 재활용을 위해 아모레퍼시픽과 업무 협약을 체결
 - GS는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수거한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연간 100톤)을 사용해 친환경 복합수지로 재활용하여 다시 화장품 용기에 적용하여 자원순환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

■ **금융사는 석화기업 평가 시 기존 수익성, 안정성 부문 외에 친환경 사업 전환 대응을 함께 검토**

- 탄소 다 배출업종인 석유화학 업계는 탄소중립, 친환경 등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친환경·저탄소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자본시장에 대응하여 친환경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
- 특히 미래 주력 소비층인 MZ세대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고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므로 석유화학 기업들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의 변화가 중요
-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금융사는 석유화학 기업 검토 시 기업의 실적 등 수익성, 안정성 부문과 함께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친환경 사업 전환에 대한 대응 수준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 

그림15 | 효성 친환경 섬유 ‘리젠 제주’로 만든 의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그림16 | GS칼텍스의 플라스틱 자원 순환 사업 도식도



자료 : GS칼텍스

C24. 철강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발표로 현실화되고 있는 철강산업의 환경세 부담

※ **Summary** : 지난 7월 14일 EU가 'Fit for 55' 계획을 통해 탄소 다배출 산업 5개(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에 대해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겠다고 발표. 향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이 본격화될 경우 對EU 수출 규모가 크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산업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탄소 배출량이 큰 고로사의 타격이 가장 클 전망

※ **Comment** : 전체 매출(수출) 중 선진국(對EU) 시장 의존도가 높고 환경오염 유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응 전략 및 탄소관세 도입에 따른 실적 변화를 모니터링 할 필요

■ 지난 7월 14일 EU가 'Fit for 55' 계획에서 탄소 다배출 산업 5개에 대해 2026년부터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겠다고 발표

- 2019년말 유럽 그린딜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을 언급한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Fit for 55' 입법 패키지에 포함되는 CBAM의 초안을 발표
 - ※ Fit for 55는 EU가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패키지 정책
-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세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
 - 먼저 2023년부터 EU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등의 5개 산업에 CBAM이 적용되는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전면 도입
- CBAM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다는 표면적인 목표 하에 선진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新무역장벽으로 활용 가능

표04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주요 일정

2007~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집행위, 비공식적으로 제도 도입 논의, 산업계 반대로 무산
201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그린딜 발표, 202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및 제도 도입을 발표
2020.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집행위, 초기 영향평가 발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개최
20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부양책에 대한 자원 마련 수단으로 탄소국경조정제 언급 유럽 의회, 경기회복을 위해 탄소국경조정제 등의 세제 도입 승인(9.16)
2021.1Q~2Q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집행위, 최종 영향평가 발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 공식 입법안 제출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재정리

그림17 | EU의 'Fit for 55' 주요 내용

친환경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 기준 40%로 상향 - 친환경 운송과 수소 생산에 대한 크레딧 제도 설립
에너지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효율화 목표 2030년 32.5%에서 36~39%로 상향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까지 운송 분야 탄소 배출량 90% 저감 -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 친환경 차량 누적 판매량 3000만대 목표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량 매년 2.1% 증가 -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탄소 배출량 2030년까지 61% 감축
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40GW의 수전해 시스템 설치 - 산업 수소 소비 중 그린수소 비중 50% 목표
탄소 국경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분야에 우선 적용 - 2023~2025년까지 시범 적용, 2026년부터 본격 적용

자료 : 언론보도 자료 종합

■ **향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특히 탄소 배출량이 큰 고로사의 타격이 가장 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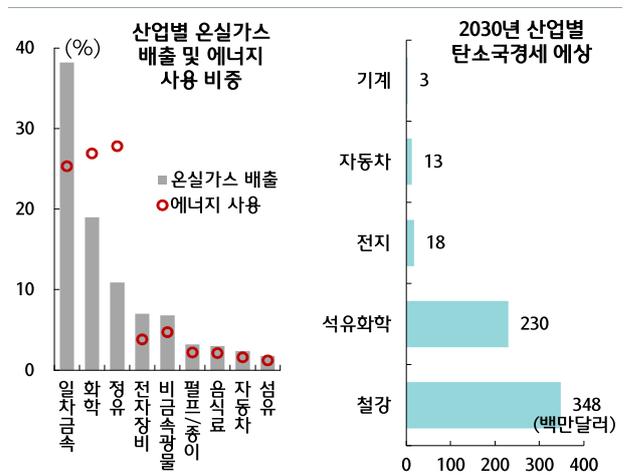
- 현재 국내 산업별 對EU 수출 규모 및 탄소배출량을 고려할 때 철강산업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
 - 규제 대상 산업 중 철강은 유일하게 對EU 수출 품목 중 10위권 내 산업(2020년 수출 약 15억 달러)이며, 국내 산업계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약 4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
- 또한 철강산업은 수요변동과 무관하게 고로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어려워 고정비 비중이 높고, 일정수준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된다는 구조적 문제에 노출
- 따라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더해 2026년 이후 CBAM가 본격 적용될 경우 철강기업의 환경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
 - CBAM 도입 시 EY한영은 국내 철강업체가 對EU 수출에서 부담할 연간 비용을 약 1,600억 원으로 추정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對EU 철강 수출이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
- 이에 철강 대기업은 탄소중립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공장 설립 또는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
 - POSCO그룹과 현대차그룹은 고로를 통한 철강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공동 개발하여 현대차가 사용하는 자동차 강판 등의 생산에 적용할 계획
- 탄소국경세 도입의 추가적인 조치와 규제 움직임을 추적하고 관련 산업 내에서 선진국 시장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대응 및 실적 발표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철강 생산 공정별 평가 시 제철, 제강, 제련을 담당하는 상공정 고로사를 중심으로 환경비용 리스크(매출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편)가 크며, 이에 대응이 미흡한 영세기업에 대한 보수적인 여신 관리가 중요⁹⁾

표05 |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의 對EU 수출 현황

품목	2018		2019		2020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철, 철강	2,485	2,946	2,124	2,784	1,523	2,214
알루미늄	110	31	155	47	186	53
비료	1	0.9	1	8	2	9
시멘트	0	0.07	0	0.02	0	0.08
전기	0	0	0	0	0	0

주 : 단위는 금액 백만달러, 물량 천톤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그림18 | 국내산업별 환경오염 수준 및 철강산업 부담 예측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EY한영회계법인

C26. 반도체 : 칭화유니 파산과 중국 반도체 굴기

※ **Summary** :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인 칭화유니가 파산을 공식 선언. 칭화유니는 YMTC 등 중국 주력 반도체 기업을 포함하여 280여개에 달하는 관련 계열사를 보유 중. 칭화유니의 상징성과 업계 영향력으로 인해 중국정부는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나설 전망이며, 미국 제재 강화와 칭화유니의 파산이 겹치며 중국 반도체 굴기는 대내외적인 위기에 따른 방향성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

※ **Comment** : 칭화유니 파산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반도체 기술 격차를 확대하고 중국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전망이나, 대중 투자 이슈에 있어 미중 사이에서의 양자택일 리스크가 더욱 심화될 전망

■ 중국 반도체 핵심 기업인 칭화유니 파산 선언으로 중국 반도체 굴기 한계 봉착

- 칭화유니의 채권자 회상은행은 ‘만기 채무상환 및 모든 부채 상환을 위한 자산 부족’ 내용을 중국 법원에 공식 제출하면서 칭화유니의 파산 선언을 공식화(‘21.07.11)
 - 이미 ‘20년 11월과 12월 칭화유니는 두 번의 디폴트 선언으로 경영 위기 대두
 - 칭화유니는 디폴트 이후 공적자금 지원으로 연명했으나, 유동성 한계로 파산을 공식 선언
- 칭화유니는 국립 칭화대학이 설립한 종합 반도체 그룹으로, 중국 행정부(국무원)가 막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직접 경영에 참여할 만큼 중국 반도체의 상징적 존재
 - 칭화유니는 YMTC 등 중국 핵심 반도체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반도체 펀드(24조원 규모)의 43%가 칭화유니 반도체 자회사에 투자될 만큼 중국 반도체의 상징
- ‘25년까지 자급률 70%를 목표로 추진 중인 중국 반도체 굴기는 칭화유니 파산과 미국의 강력한 중국반도체 산업 제재로 내외부적 위기에 봉착
 - 미국은 SMIC 등 중국 반도체 기업을 규제하고 EUV 같은 첨단 장비의 대중 수출 봉쇄 중

표06 | 칭화유니 개요

구분	내용
주요 사업	-반도체 설계 및 생산(IDM:종합반도체 회사) -데이터 센터
주요 자회사	-YMTC(메모리반도체 생산) -쯔광쯔루이(통신칩 설계) -쯔광궈웨이(반도체 설계)
주요 투자	-마이크론(美) 인수 시도, 실패 (‘15년, 실패) -우한/난징 반도체 공장 건설 (‘17년, 35조원) -10년 간 140조원 투자 발표 (‘19년)
자산 및 부채 규모	-자산 : 53조원(2020년 기준) -부채 : 36조원(2020년 기준)

자료 : 언론 종합,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표07 | 칭화유니 주요 사업군 및 자회사

사업군	제품	자회사	손자회사
비메모리	무선통신칩	Unisoc	-
	보안칩	궈신 마이크로	통신마이크로
메모리	특수반도체	YMTC	State Micro
	D램		UniIC
	낸드플래시		XMC

자료 : 칭화유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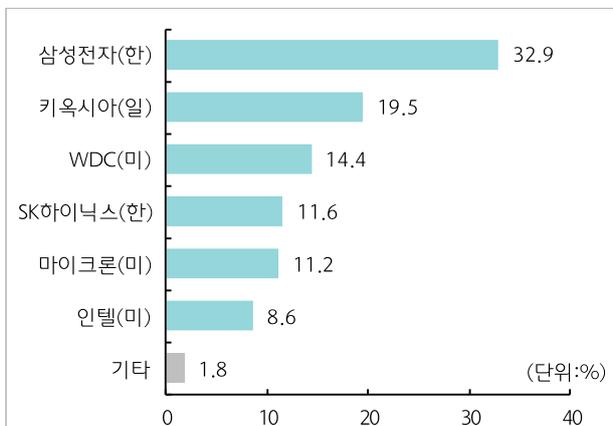
■ **칭화유니 파산의 일차적 원인은 무분별한 대규모 투자와 유동성 창출 한계에 따른 부채 급증**

- 거듭된 해외 기업 인수 실패와 미국의 제재로 칭화유니는 계열사를 통한 대규모 역내 설비 투자에 집중했지만, 자체 기술력 한계로 뚜렷한 성과 창출에는 실패
 - 반도체 굴기 본격 추진을 위해 칭화유니는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15), 샌디스크('16) 인수를 추진했으나, 실패하면서 다수 계열사를 동원한 역내 직접투자 방향으로 선회
 - 이후 수직 계열화와 대규모 투자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반도체 대기업업을 모방, 다수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YMTC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낸드플래시에 투자하였으나 격차 극복 실패
- 또한 경영 효율에 앞서 '중국 정부의 개발 방향성 추종' 이 우선시됨에 따라 사업영역이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유동성 창출 한계로 악성 부채가 급속히 증가
 - 데이터 센터 등 중국 정부의 중점 사업 분야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그룹 순이익이 500억원(21.1Q)을 밑돌 만큼 현금창출 능력이 취약, '19년 이후 채권 발행도 한계

■ **또한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중국 반도체 산업 제재로 기술 개발과 자금 조달 위기 도래**

- 美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의 해외 반도체 기업 인수를 원천 차단하고 EUV 등 첨단 반도체 설비 및 자재의 대중 수출을 봉쇄하며 중국의 반도체 자체 개발 가능성을 억제
 - EUV(노광장비)는 첨단 반도체 생산의 핵심 설비로, 중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필수 요소
-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업의 해외 자금 조달 루트를 강도 높게 봉쇄하면서 다수의 반도체 계열사를 보유한 칭화유니의 자금난이 가속화되었음
 - 美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중국 군산복합체 기업의 직간접 주식 투자를 금지하였으며, 이 가운데 SMIC 등 중국의 핵심 반도체 기업이 다수 포함
 - 칭화유니가 직접적으로 제재 기업 List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 핵심 반도체 기업의 자금 조달 봉쇄는 280여개의 관련 계열사를 보유한 칭화유니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침

그림19 |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20.4Q)



자료 : 트랜스포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표08 | 미국의 중반도체 투자 금지 리스트(NS-CMIC List)

번호	기업명	분야
1	Changsha Jingjia Microelectronics	GPU
2	China Electronics Corporation	Analog
3	SMIC	파운드리
4	Zhonghang Electronic	정밀기계장비
5	China Electronics Tech Group	Ion Implantor
6	Fujian Torch Electron	Capacitor
7	Huawei Technologies(하이실리콘)	팹리스

자료 : KIEP

■ 자금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중국 빅테크 기업이 칭화유니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상징성과 업계 위치를 고려할 때 중국 정부는 칭화유니의 조속한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전망이며, 관(官)주도의 경영구조에서도 탈피할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는 국립 칭화대와 칭화홀딩스를 통해 칭화유니의 독자적 경영 거버넌스를 확보 중
- 경영효율 확보와 부채 상환이 시급한 칭화유니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술력과 자금력이 충분한 중국 빅테크 기업이 칭화유니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칭화유니는 파산 신청을 앞두고 알리바바바 그룹 등 빅테크 기업과의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정부의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는 마윈 회장은 인수에 적극 나설 전망

■ 중국 반도체 굴기 타격으로 국내 기업 수혜가 예상되나, 미중 갈등에 따른 리스크는 확대

- 칭화유니 파산과 미국 제재 강화로 중국 반도체 굴기 지향점은 첨단 반도체에서 아날로그 반도체 등 올드 테크놀로지로 이동하고, 자체적인 원천 기술 확보가 중시될 전망
 - 중국은 미세공정 기업에게 지원을 집중하며 첨단 반도체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미국 제재로 인한 첨단장비 확보 한계와 칭화유니 파산으로 방향성 선회가 불가피한 상황
 - 결국 제재 영향력이 낮고 단기성과 창출이 용이한 ‘올드 테크놀로지 반도체’로 지향점을 선회하고,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 독자적인 원천 기술 확보에도 집중 할 전망
- 중국 첨단 반도체 타격으로 중국의 추적이 지연되고 한국 반도체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전망이나, 미중 공급망 분리 등 대중 투자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전망
 - EDA 등 반도체 생산요소는 미국과 동맹국이 주도하고 있어 중국 자체 생태계 조성 불가피
 - 중국은 자급률 충족을 위해 한국 기업의 역내 추가 투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의 대중 첨단 장비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한국의 양자택일이 불가피할 전망

그림20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중국의 한계



자료 : SIA,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참고1] 중국 반도체 굴기 (Made in China 2025)

■ 중국은 자급률 개선과 미래 시장선도를 목표로 반도체 굴기를 추진 중

- 중국은 AI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나친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2015년 이래 적극적인 반도체 굴기를 추진 중
 - 목표 : 現 20%미만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 수준까지 개선하고 3세대 반도체를 개발하여 세계 반도체 생태계를 주도, 미국 의존성을 탈피
 - 현황 : 미국의 화웨이 제재('19) 이후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나, SIMC 등 핵심 기업 및 장비 수입 규제와 칭화유니 같은 주력 기업 파산으로 위기 봉착
- 반도체 굴기를 위해 중국은 소득세, 자금지원 및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 중 (10년간 170조원 규모)
 - 소득세 : 기업의 초미세 공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업력과 미세공정 기술력에 따라 소득세 지원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세 면제는 중국에서도 이례적으로 평가됨
 - 투자 및 용자 : 정부 주도로 대규모 반도체 펀드(빅펀드)를 두 차례 조성하였으며, 지역별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 및 관련기업의 기업 상장 절차를 간소화
 - R&D 및 인력 : 설계에 필요한 생산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중국 독자적인 표준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노력 중이며, 베이징대, 칭화대 등 주요 대학의 학과 개설 지원

표09 | 중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20.08)

지원 분야	지원 내용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운드리(제조) 업체 -업력 15년 이상 및 28nm이하 (10년 면제) -업력 15년 이상 및 65nm이하 (5년 면제) -업력 10년 이상 및 130nm이하 (2년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및 패키징 업체 -일반 기업 (2년 면제) -중점 기업 (5년 면제)
투자 및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 서비스 강화 · 기업 주식시장 지원 및 상장 절차 간소화 	
R&D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 생산기술 및 소프트웨어 지원 · 기업 R&D 표준화 작업 지원 · 중점대학 반도체학과 대폭 증설 	
총 규모	10년간 1조 위안(한화 약 170조원)	

자료 : 언론종합, 하나금융경영연구소

F. 건설업 : 건설 원자재 부족 당분간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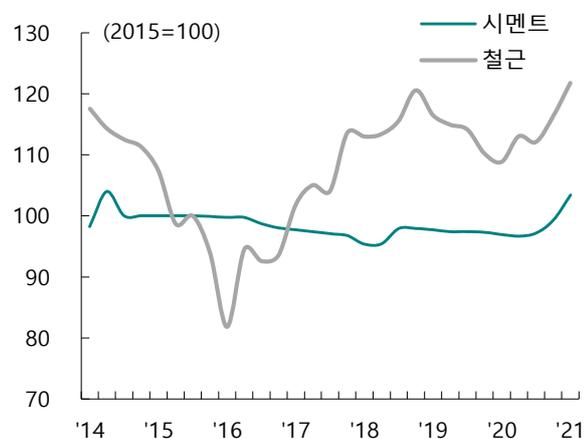
※ **Summary** : 전년 하반기 이후 건설수주가 급증하고, 수주된 현장이 착공으로 순조롭게 이어지면서 건설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 공급업체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공급 확대가 지연되면서 당분간 원자재 재고 부족 및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자재 공급업체들의 생산능력을 감안하면 부족현상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Comment** : 유통 대리점 등을 통한 소량조달을 관행으로 하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자재부족 및 가격 급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관련 여신의 취급에 주의가 필요함

■ 최근 시멘트와 철근가격이 급등하고 재고가 급감하는 등 건설 원자재 수급불안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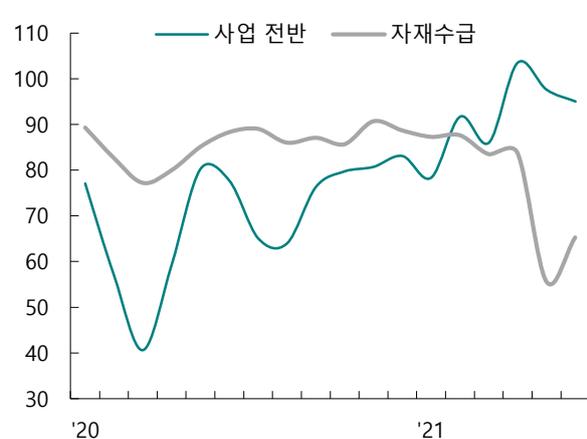
- 연말 이후 시멘트 가격은 4.2%, 철근 가격은 4.7% 상승했으며, 시멘트를 주재료로 하는 레미콘, 콘크리트파일 및 H형강 등 금속원재료 가격도 급등세
 - 시멘트 가격지수('15=100) : 98.0('16) → 97.4('19) → 99.3('20) → 103.5('21.1q)
 - 철근 가격지수('15=100) : 93.6('16) → 110.2('19) → 116.3('20) → 121.8('21.1q)
- 통상 126만톤 수준이던 시멘트 재고는 80만톤 수준으로 저하되었으며, 철근 역시 30만톤 수준에서 15만톤 수준으로 저하되는 등 원자재 수급불안 현상이 지속
-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일부 사업장의 공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공기가 지연되지 않더라도 상당수 건설사들이 자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중
- 국토부 및 조달청은 원자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TF 신설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공공공사 공사비를 상향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

그림21 | 시멘트 및 철근 가격지수



자료 : 한국은행

그림22 | 주택건설경기 실적지수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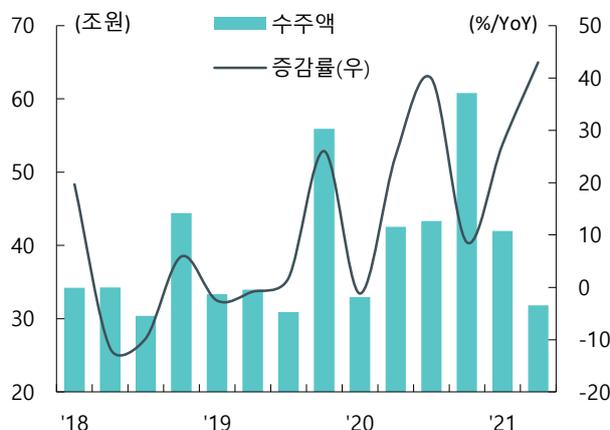
■ 전년 하반기 이후 주택을 중심으로 건설수주 급증하는 등 건설경기 회복세 진입

- 2015년 주택공급 급증 이후 4만여호 수준을 유지하던 지방 미분양은 공급축소 및 주택수요 증가로 2020년 하반기 이후 1.5만여호 수준으로 급감
 - 지방 아파트 분양물량(만호): 24.6('15년) → 22.8('16년) → 14.3('18년) → 16.5('20년)
- 미분양 감소로 분양여건이 개선되자 2020년 하반기 이후 그 동안 계약이 미뤄지던 프로젝트들이 대거 수주로 이어지면서 건설 수주액 증가세를 견인
 - 지역별 건설수주 증가율('20년/YoY) : 6.4%(수도권), 29.3%(지방)
- 한편, 수도권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회피 물량이 대거 수주로 인식되면서 올해 상반기 수주확대를 견인하는 등 건설경기 회복세가 본격화
 - 지역별 건설수주 증가율('21.5월 누적/YoY) : 40.7%(수도권), 25.5(지방)

■ 부동산 시장 활황 이어지면서 수주 프로젝트 속속 착공되면서 원자재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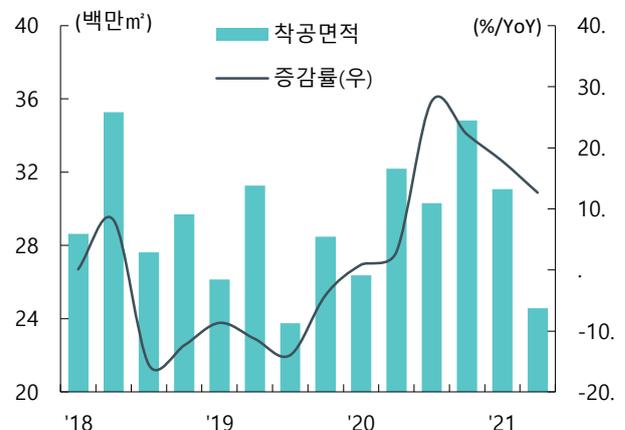
-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료가 급등하고, 임차거주자의 자가구입이 증가하는등 그 동안 수도권에 국한되던 주택수요 증가가 전국에 걸쳐 확산
- 수요 증가로 미분양 발생 위험이 저하됨에 따라 건설 인허가, 시공사 선정(수주), 건설자금 편당, 착공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개발 프로세스가 원활히 진행
- 결과적으로 전년 하반기 이후 급증한 수주물량이 속속 착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 자재에 대한 수요가 전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증가세
 - 건축 착공면적 변동률(%/YoY) : -5.1%('18) → -9.5%('19) → 12.8%('20)

그림23 | 건설 수주액



주 : '21.2분기는 4~5월 누적 집계치
자료: 통계청

그림24 | 건축 착공면적



주 : '21.2분기는 4~5월 누적 집계치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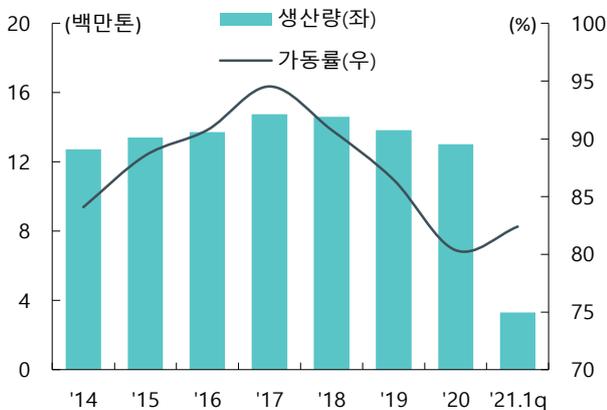
■ **자재 생산공장 가동을 저하에 중국산 수입물량 감소가 겹치면서 철근 공급량 감소**

- 철근 생산업계는 7개사가 주도하는 과점상태이며 업체들은 지속된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철근 생산물량을 줄여 수익성 극대화를 모색
 - 철근 생산량(백만톤) : 14.8('17년) → 14.6('18년) → 13.8('19년) → 13.0('20년)
- 전년 하반기 이후 건축 착공 증가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었으나 생산시설에서의 인사고 등으로 조업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올해 1분기 가동률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철근 설비 가동률 : 94.5%('17년) → 86.5%('19년) → 80.4%('20년) → 82.4%('21.1Q)
- 여기에 지난 5월 중국이 자국 내 수요가 급증하는 철강제품의 수출 억제를 위해 철근 등 철강제품에 대해 수출 증치세 환급을 폐지하면서 원자재 부족현상은 더욱 가중

■ **친환경 생산설비 도입 등으로 시멘트 공장 가동을 저하되면서 시멘트 공급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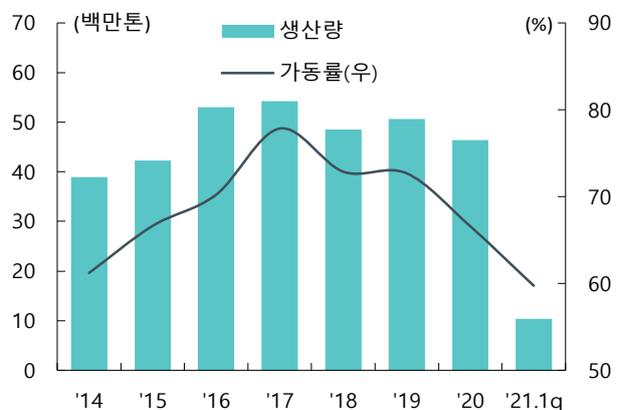
- 시멘트 업계 역시 최근 M&A로 인해 5개사가 주도하는 과점상태이며 건설경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줄여 수요 감소에 대응
 - 시멘트 생산량(백만톤) : 54.2('17년) → 48.6('18년) → 50.7('19년) → 46.4('20년)
- 최근에는 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유연탄 중심의 생산설비를 폐고무,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활용하는 친환경 생산설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설비 가동률이 더욱 저하
 - 시멘트설비 가동률: 77.8%('17년) → 72.7%('19년) → 66.6%('20년) → 59.7%('21.1Q)
- 한편,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철도 운송 등 시멘트 유통역량도 택배 등으로의 전환, 광운대역 물류기지 철거 등으로 감소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재부족이 가중

그림25 | 철근 생산량 및 가동률



주 : 가동률이 공개된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등 5개사 합산
자료: 통계청

그림26 | 시멘트 생산량 및 가동률



주 : 가동률이 공개된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 6개사 합산
자료: 국토교통부

■ 원자재 부족난은 하반기 이후 점진적 해소될 것이나 가격 하락은 지연될 전망

- 최근 건설 원자재 부족난의 근본적 원인은 수요 증가보다는 공급감소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내 생산업체들의 생산역량을 감안하면 하반기 이후에는 점진적 해소가 기대
 - 과거 업체들의 최대 생산량을 감안할 때 2020년 대비 철근은 약 200만톤, 시멘트는 약 800만톤의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단, 가격의 조정은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철근의 경우 정책적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철근의 수입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
- 시멘트의 경우에도 기존의 탄소배출권 구입, 질소산화물 부담금 외에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안전운임 인상(9.87%), 유연탄 가격 상승 등의 원가 상승요인이 존재하기 때문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률 저하는 하반기 이후 본격 반영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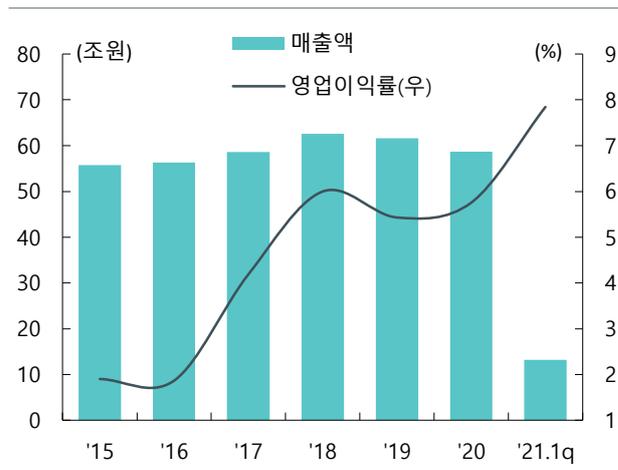
- 정부의 규제, 지방 주택시장의 위축 등으로 건설업계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중이며 감소된 매출에 대응해 원가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영업이익률을 보전
 - 주요 건설사의 매출액은 '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영업이익률은 '19년 이후 상승
 - 주요 건설사 매출원가 변동률(%/YoY): 4.4%('18년) → -1.6%('19년) → -5.7%('20년)
- 원자재의 대량 주문을 통한 원가관리가 수월한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자재가격 상승이 경영 실적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3분기 이후 실적부터 영업이익 저하 예상
- 다만, 중소 건설업체는 유통 대리점 등을 통한 자재구매가 관행인 관계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우려되어 관련 여신 관리에 주의가 필요 

표10 건축 자재별 투입 비중

	투입금액	자재 비중(%)
건축용 금속제품	12,078	11.7
레미콘	11,395	11.0
철근 및 봉강	7,048	6.8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5,372	5.2
콘크리트 제품	5,052	4.9
구조물용 금속제품	4,895	4.7
전선 및 케이블	3,973	3.8
철강관	3,889	3.8
산업용 운반기계	2,559	2.5
아스콘 및 아스팔트	2,382	2.3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2020)

그림27 | 주요 건설사 경영 실적



주 : '21.1q 매출액 상위 10개사 합산실적이며 업역이 혼재된 삼성물산, 최근 사명이 변경된 DL건설 등은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G. 종합유통 : 한국과 미국의 이커머스 상위 3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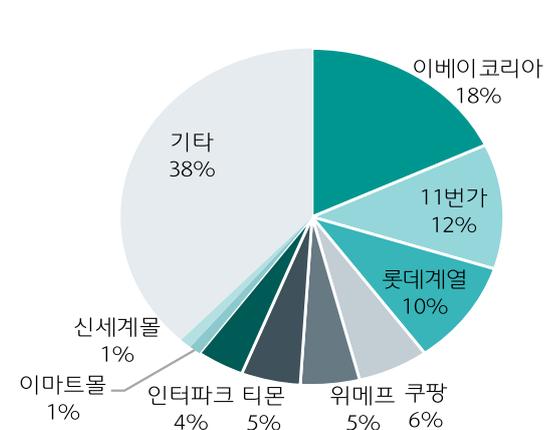
※ **Summary** :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와 쿠팡의 급성장과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로 3년 만에 상위 3위 업체가 모두 변동됨. 한편, 미국의 경우 아마존이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쇼피파이와 월마트가 상위권으로 성장. 한국과 미국 이커머스 시장의 상위 3사는 각각 풀필먼트, 온라인몰 창업 솔루션, 옴니채널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보이지만 각 특성별 세부 비즈니스 모델은 다소 상이

※ **Comment** :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기 위한 3사의 투자 경쟁 및 물류 비용 증가 등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저조한 수익성이 지속될 전망으로 금융권에서는 이를 고려한 업체별 차별화된 접근 필요

■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와 쿠팡의 급성장으로 경쟁 구도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신세계 그룹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로 3년 만에 시장 3위 업체가 모두 변동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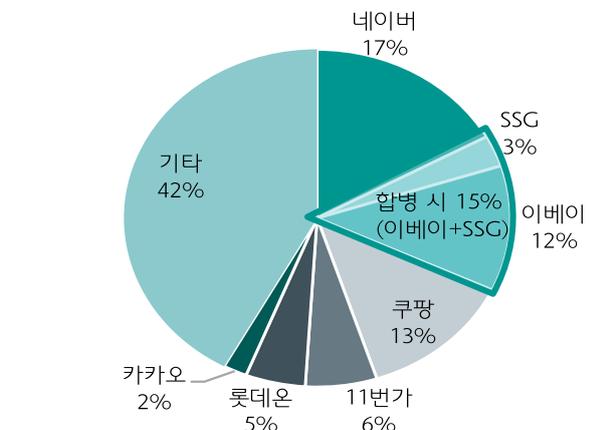
- 2017년, 이베이코리아(지마켓, 옥션, G9 운영), 11번가 등 오픈마켓과 롯데 계열의 온라인몰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며 시장 선두권을 형성
-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와 라스트마일의 중요도 상승 속에서 네이버와 쿠팡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3년 만인 2020년 시장 경쟁 구도가 크게 변화
 - 네이버는 중개 수수료 무료(검색 서비스 노출 시 2%)화, 데이터 분석 도구 제공 등으로 SME의 온라인몰 창업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점유율 17%를 차지하며 1위로 성장
 - 공격적인 물류 투자로 라스트마일 경쟁력을 갖춘 쿠팡이 점유율 13%로 2위로 성장
- 최근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가 점유율 12%의 3위 업체인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3년 전 2%에 불과했던 시장점유율을 15%(SSG.COM 3% 포함)까지 확대

그림28 | 2017년 국내 이커머스 점유율



주 : 거래액 기준
자료 : 각 사, 한국투자증권

그림29 | 2020년 국내 이커머스 점유율



주 : 거래액 기준
자료 : 각 사, 교보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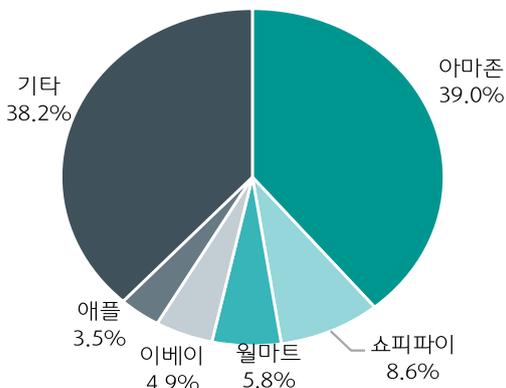
■ 미국에서는 IT 및 풀필먼트 인프라 기반의 아마존이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D2C와 협업 기반의 쇼피파이, 온라인몰 인수합병으로 옴니채널 경쟁력을 강화한 월마트가 시장 상위권을 형성

-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마존은 공격적인 투자로 IT 및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면서 소비자 및 판매자의 편의성 증진과 잠금 효과를 극대화
 - 아마존은 IT, 물류 인프라를 각각 AWS(아마존웹서비스), FBA(풀필먼트바이아마존)으로 외부 고객 대상 서비스로 출시했으며, 이를 통한 수익으로 마켓플레이스의 저수익성 극복
- 최근 '아마존 대항마'로 거론되는 쇼피파이는 D2C 개설 및 운영 솔루션 제공과 구글, 페이스북 등과의 협업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2위 수준의 거래액 달성
 - 2020년 쇼피파이 이용 판매자의 거래액은 1,190억달러로 전년대비 96% 성장하면서 미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8.6%(거래액 기준)를 차지
- 월마트는 Jet.com 등 다수 이커머스 업체의 인수합병을 통해 이들의 기술과 인력을 흡수하는 한편 기존 오프라인 매장과의 옴니채널 전략을 강화하면서 시장 3위로 성장
 - 2016년 Jet.com, 2017년 무스조, 보노보스, 2018년 인도 플립카트 등의 인수를 통해 이커머스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2020년 이베이를 제치고 미국 시장 점유율 5.8% 차지
 - 다만, 기존 월마트의 중저가 소비시장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Jet.com의 프리미엄 시장 리포지셔닝 전략이 실패하면서 2020년에 Jet.com 서비스를 종료

■ 한국과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에서 상위권을 형성한 3사는 풀필먼트, 온라인몰 창업 솔루션, 옴니채널의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각 특성별 세부 비즈니스 모델은 다소 상이

- 한국과 미국 이커머스 시장의 상위 3사는 풀필먼트 기반의 마켓플레이스, 창업 솔루션과 디지털플랫폼 연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옴니채널)이라는 특성을 지님

그림30 | 2020년 미국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자료 : 이마켓터, 쇼피파이

그림31 | 월마트의 이커머스 역량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



자료 : 딜로이트

- 물류 경쟁력과 자체 멤버십을 통해 높은 성장성을 나타낸 점은 아마존과 쿠팡이 유사
 하나 클라우드, 3자 물류 등 수익화 사업 부문에서 아마존 대비 쿠팡이 다소 미흡함
 - 쿠팡은 물류 서비스화를 위해 3자 물류 자격 획득 및 전국 단위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 최근 ‘한국의 쇼피파이’를 표방한 네이버의 경우, 쇼피파이가 D2C 개설 및 운영 전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면 네이버는 숭인숍 형태의 오픈마켓이라는 차이를 지님
- 이마트는 이베이코리아 인수로 방대한 이커머스 소비자 기반과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면서 옴니채널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 부문 간 시너지 효과는 미지수
 - 월마트 2개물(Walmart.com, Jet.com)의 시너지 구축 실패를 고려하면,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3개물(지마켓, 옥션, G9), SSG(이마트물, 신세계물 등 15개물) 통합에 난항이 예상

■ 이커머스 투자 경쟁과 물류 비용 상승으로 저수익성이 지속될 전망으로 이를 고려한 접근 필요

- 쿠팡의 물류 인프라 확대, 이마트의 인수 및 통합 비용, 네이버의 솔루션 사업 확대 등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기 위한 상위 3사의 이커머스 관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신세계의 경우 이베이코리아 지분 80% 인수를 위한 3.4조원 중 1.5조원의 현금 조달 필요
 - ※ 현금성자산 약 1.06조원, 국내 부동산과 베트남 이마트 매각 대금 약 9천억원 보유
- 상위 3사의 투자 경쟁과 함께 물류 부동산, 배송 단가 등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저조한 수익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
 - 풀필먼트 센터 수요 증가와 A급 입지의 부족으로 인한 관련 부동산 비용 상승, 분류 작업을 위한 인원 충원 및 자동화 설비 구축 등으로 물류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저수익성의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투자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국내 금융권에서는 사업 모델별 확장성과 수익 창출력 등을 고려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 

표11| 한국과 미국 이커머스 시장 상위 3사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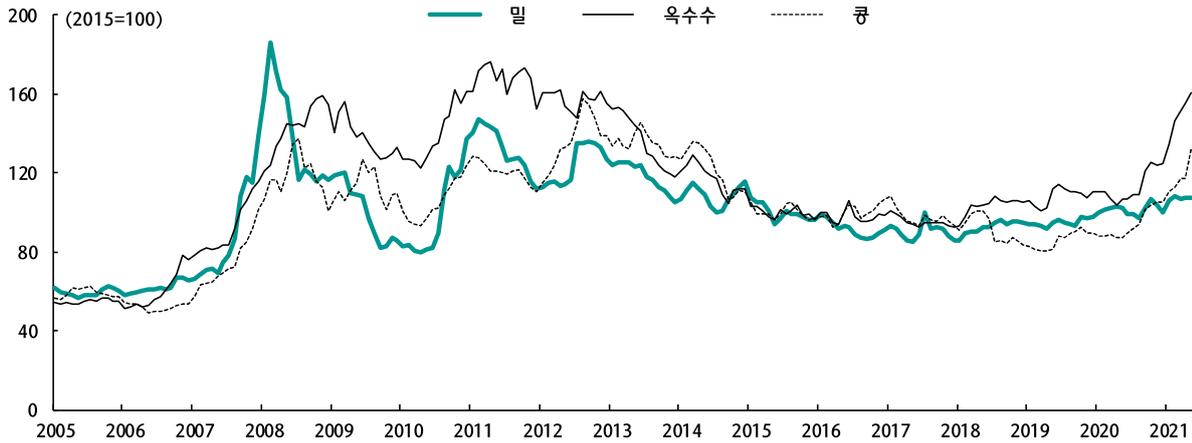
특징	내용	한국	미국	한미 업체 간 차이점
풀필먼트 기반 마켓플레이스	- 이커머스 전용 풀필먼트 인프라를 활용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배송으로 라스트마일 경쟁력 보유 - 자체 멤버십 회원 위주로 신속 배송 제공	쿠팡	아마존	- 아마존 : 3자 물류, 클라우드 등으로 이커머스의 저수익성을 보완 - 쿠팡 : 최근 3자 물류 자격 획득
온라인몰 창업 및 운영 솔루션	- D2C몰, 숭인숍 형태의 이커머스 tool 제공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기반을 확보 - 다수 기업과 협업하여 솔루션 사업 강화	네이버	쇼피파이	- 쇼피파이 : 플랫폼 거래를 탈피하려는 판매자에게 D2C 솔루션 제공 - 네이버 : 낮은 수수료의 숭인숍 형태
온·오프라인 옴니채널	- 오프라인 인프라와 온라인 채널의 융합 - 기존 오프라인 업체들이 선호하는 방식 - 오프라인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온라인 업체를 인수합병하며 이커머스 역량 강화 - 오프라인 매장을 이커머스 물류 센터로 활용	이마트	월마트	- 월마트 : 인수합병을 통해 이커머스를 강화했으나 Jet.com은 종료 - 이마트 : 이베이코리아 인수 진행 중으로 사업 간 시너지 효과 미지수

자료 : 각 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산업별 주요 지표

음식료(C10)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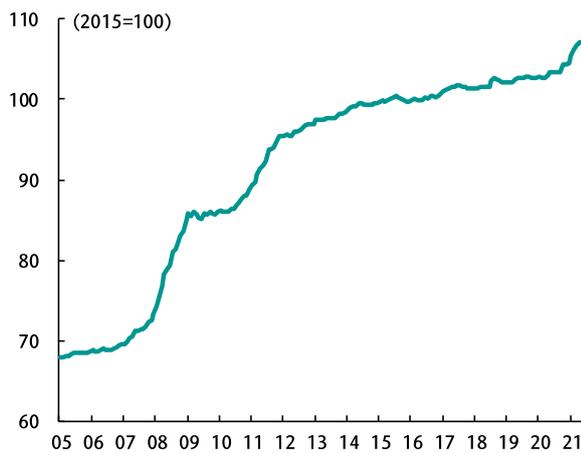
그림32 | 국내 곡물 수입가격 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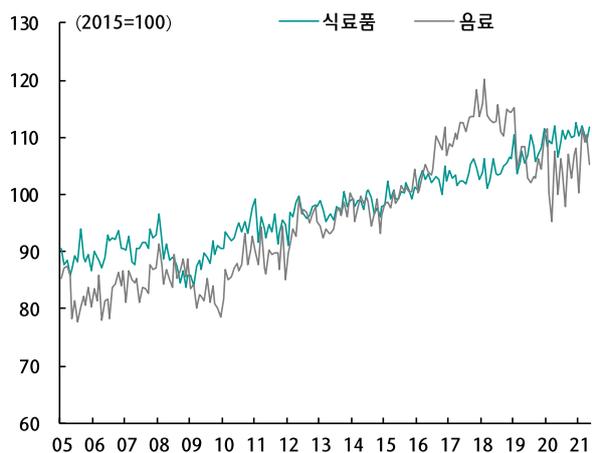
■ **2021년 상반기 국내 농축수산물 물가지수가 전년대비 12.6% 상승하면서 30년래 최고치를 기록**
 -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및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는 등 생산 및 물류 시스템 문제로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2021년 초 현재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부진 및 중국의 수입 확대 등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 높은 것으로 판단
 - 전 세계적인 곡물가격 강세 하에 상반기 중 국내 농축수산물 물가지수가 전년대비 12.6% 상승하면서 2011년 (12.5%)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1991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그림33 | 음식료품 제품가격 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34 | 음식료품 출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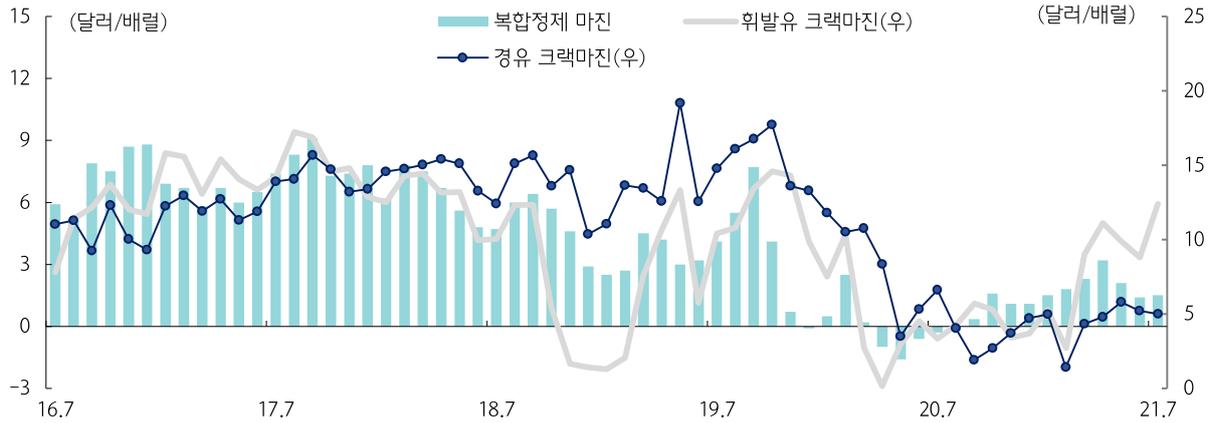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식품업계 가격 인상 러쉬** ■ **2021년 음식료품 출하지수 상승 추세**
 - 2021년 국제 곡물 및 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2020년 - 2021년 상반기 식품업계가 가격 인상 러쉬를 기록하며 상반기 가공식품 및 가정간편식 위주로 제품가격이 인상
 - 2021년 상반기 식품업계가 가격 인상 러쉬를 기록하며 상반기 가공식품 및 가정간편식 위주로 제품가격이 인상 기준 국내 식품업계 제조업의 매출이 약 5%(YOY) 증가

정유(C19)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35 | 정제마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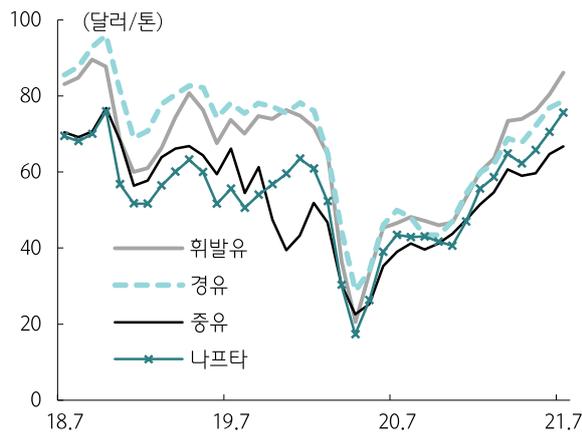


자료: 페트로넷

■ 경기회복 기대와 성수기 도래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정제마진은 (+)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BEP 하회

-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기대 고조와 여름철 이동 증가로 석유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OPEC+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유제품의 공급 부족 우려가 확대되면서 유가 상승세 지속
- 미국을 중심으로 휘발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휘발유 크랙마진은 배럴 당 10달러를 넘어섰으나 항공유 수요 부진 속 항공유, 경유 등의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7월 정제마진은 아직 BEP를 하회하는 배럴 당 1.5달러 수준에 그침

그림36 | 석유정제품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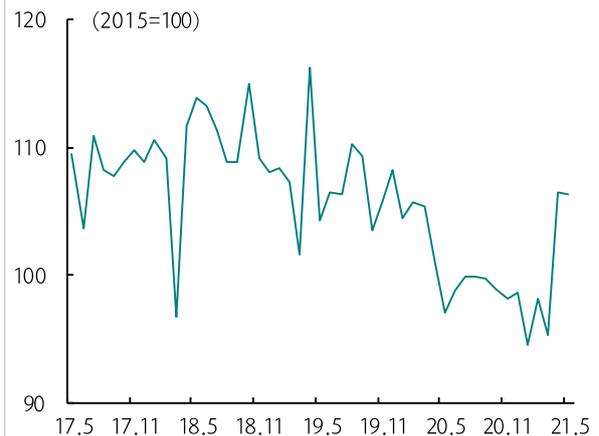


자료: 페트로넷

■ 7월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로 휘발유 가격 상승

- 원유 공급 부족에 따른 유가 상승, 여름 성수기 도래로 7월 운송유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
- 단 경유는 생산량 증가(항공유→경유 전환)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가격 상승세 제한

그림37 | 국내 석유정제품 가동률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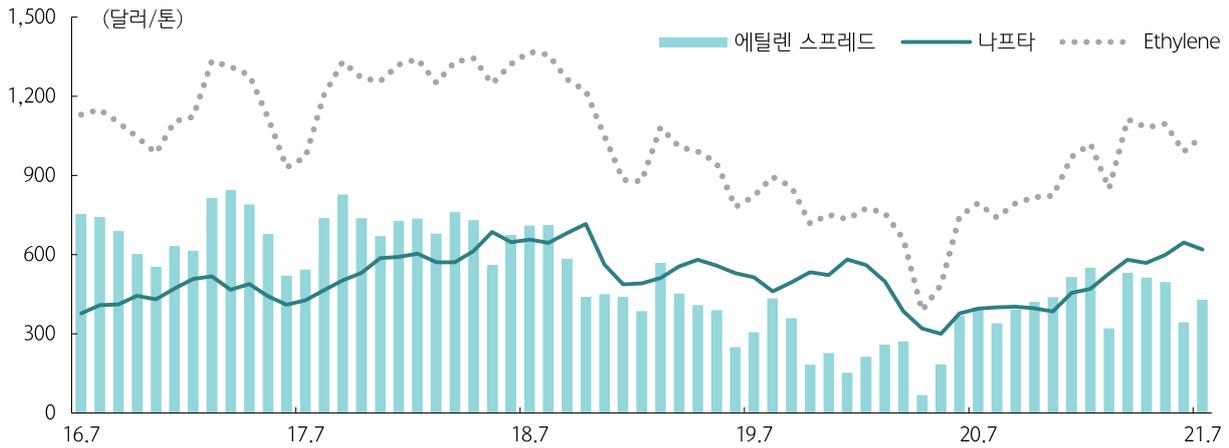
자료: 페트로넷

■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가동률 상승

- 점진적으로 석유제품 수요가 개선되는 가운데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상향 조정

화학제품(C20-21)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38 | 에틸렌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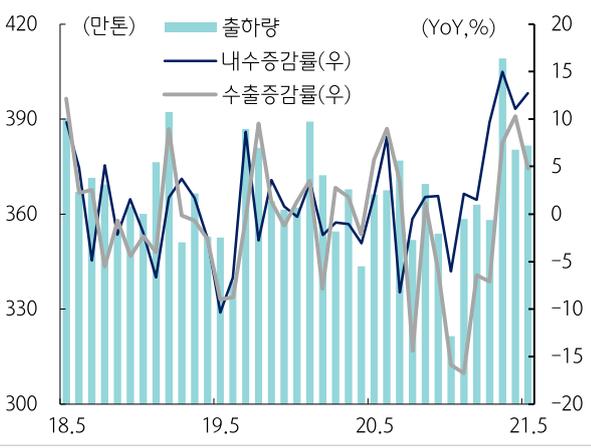


자료: 페트로넷

■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강세로 에틸렌 스프레드는 경기 호황기 수준에 근접

-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경기부양 정책 확대로 기초유분,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요 제품의 가격은 강세 지속 중
- 이에 따라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가격 부담 확대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주요 지표가 되는 에틸렌 스프레드는 1~5월 평균 톤당 450달러로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며 경기 호황기 수준에 근접

그림39 | 석유화학 제품 수급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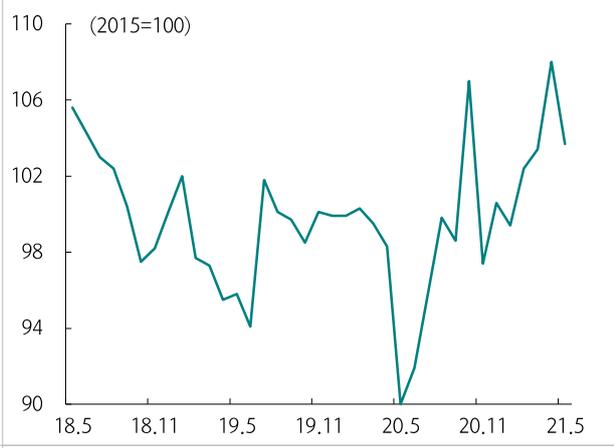


자료: 페트로넷

■ 최근 내수, 수출 모두 증가세 지속 중

- 21년 들어 국내외 포장재 및 위생용 화학제품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에 따른 건설용 플라스틱 수요도 증가
- 이에 따라 21년 1-5월 주요 제품 내수와 수출은 전년비 각각 9.6%, 2.3% 증가

그림40 | 석유화학 가동률 지수



자료: 페트로넷

■ 수요 증가로 가동률 상승세 전환

- 내수, 수출 증가로 21년 들어 가동률은 상승세 지속
- 가동률 지수는 21년 1월 99.4(2015=100)로 기준치를 하회했으나 21년 5월 104까지 상승, 전년동기 대비로도 14p 상승

철강(C24)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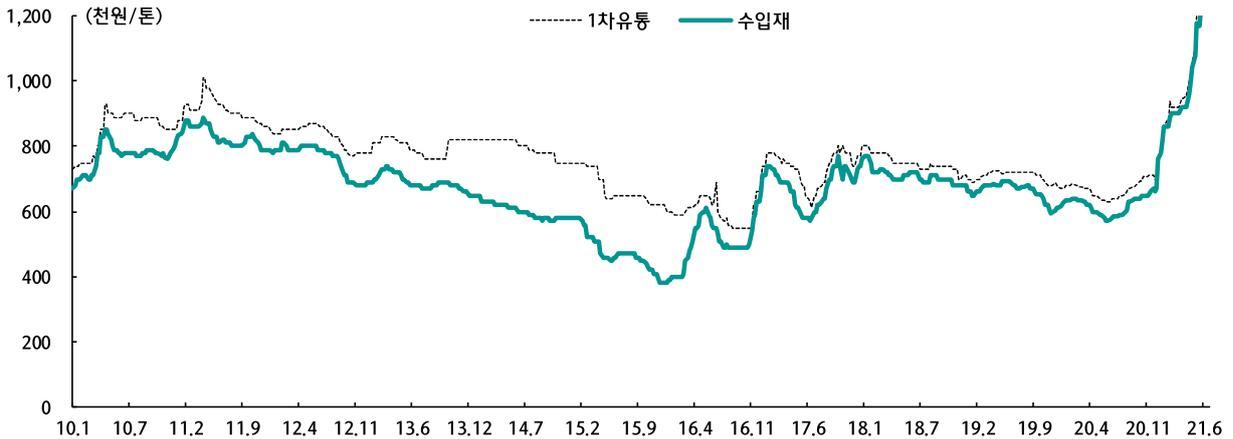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41 국내 철강(고로 열연)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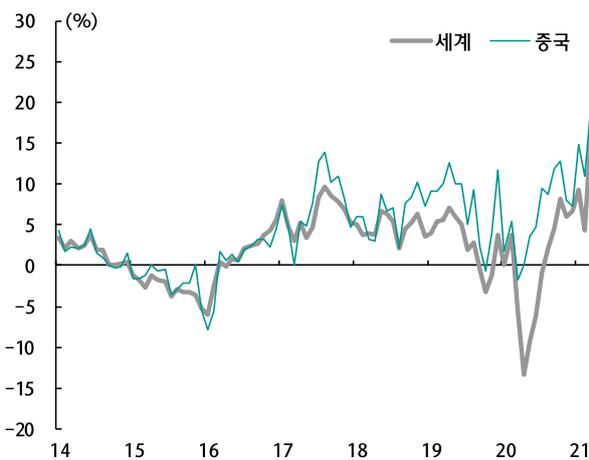


자료: 한국철강신문

■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강가격 상승 지속

- 2021년 상반기 건설, 조선, 자동차, 가전 등의 전방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및 원자재(철광석 및 석탄) 가격 급등에 따른 cost push 영향으로 주요 철강제품의 가격이 상승
- 그러나 6월 이후 유럽과 미국 지역의 철강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반면, 중국과 한국에서는 가격이 소폭 하락하면서 조정받는 디커플링 현상이 관찰되는데, 이는 국가별 경기부양 효과 시차에 기인

그림42 전 세계 조강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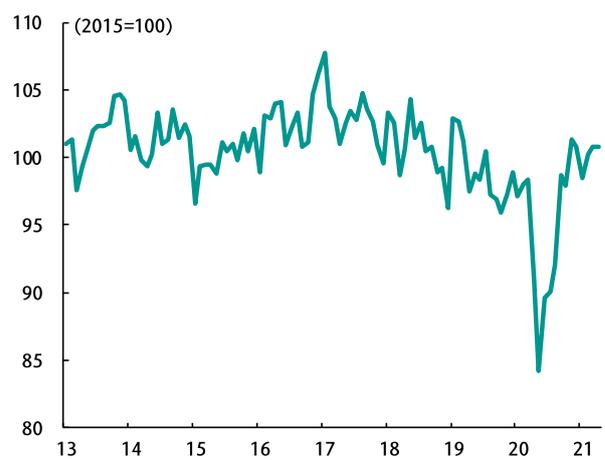


자료: World Steel Association

■ 2021년 5월 누계 국내 조강생산 6.5%(YOY) 증가

- 2020년 5월 누계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이 미국, 중국 등의 경기 회복으로 14.5%(YOY) 증가했고, 국내는 6.5%(YOY) 증가

그림43 국내 1차 금속 출하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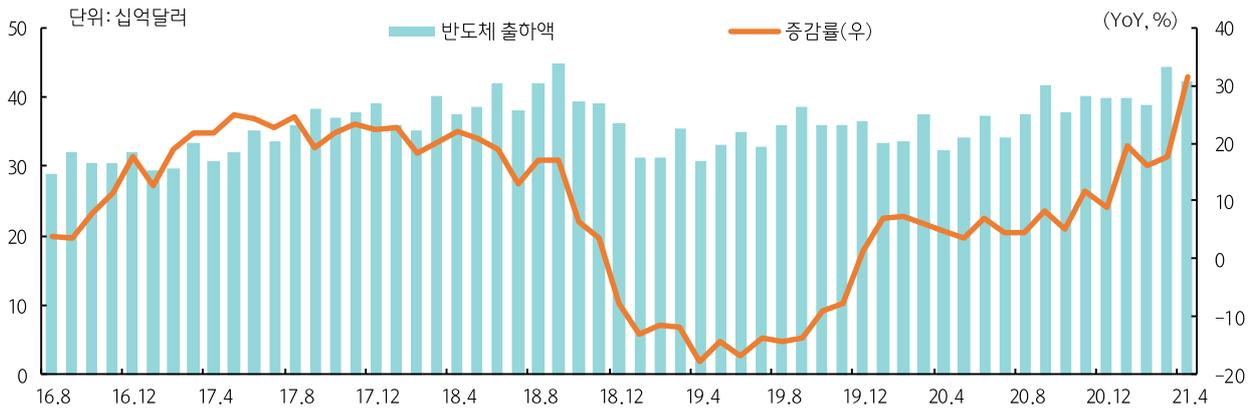
■ 상승추세를 보인 출하지수의 변동성이 둔화

- 2020년 6월 이후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인 국내 금속 출하지수가 2021년 들어서는 등락을 보이며 안정되는 모습

반도체(C26)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44 전 세계 반도체 출하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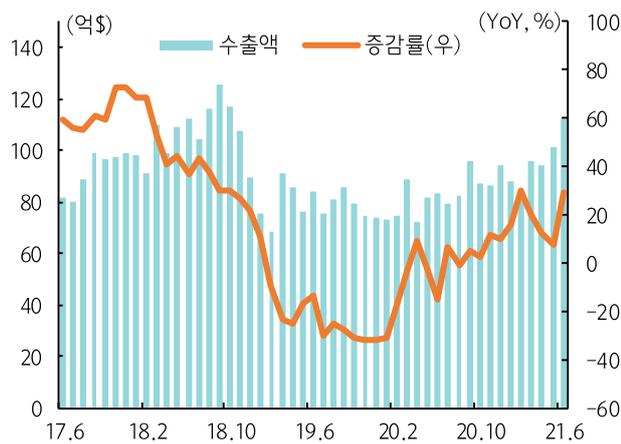


자료: WSTS

■ 글로벌 반도체 재고 축적 수요 지속과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 호조 본격화

- 4월 세계 반도체 출하는 423억 달러로 31.6% 증가(YoY)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리수 성장을 이어감
- 세계 반도체 출하 증가율(YoY,%): 19.5('21.01) → 16.0('21.02) → 17.8('21.03) → 31.6('21.04)
- 4월 지역별 출하 증가율(YoY,%): 23.2(북미), 45.8(유럽), 21.7(일본), 34.1(아시아)

그림45 반도체 수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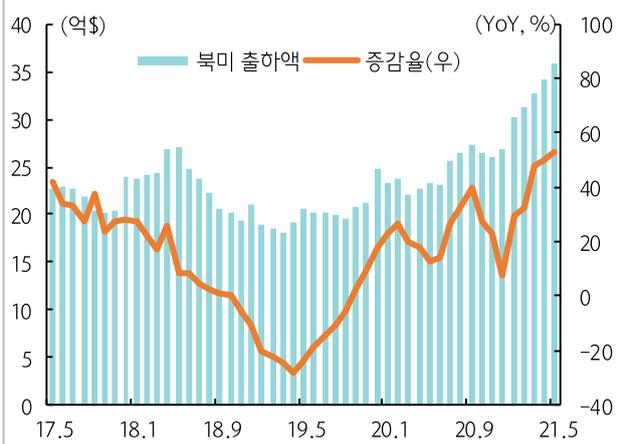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반도체 수출 성장세 상승(+34.3%)

- 6월 반도체 수출은 112.3억달러로 34.3% 성장(YoY)
- 견조한 수요로 메모리 및 시스템 동반상승
-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분이 2분기 수출 실적에 반영되면 - '20년 하반기 이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며 세계 반도체 수출 실적 성장세도 1분기 대비 상승

그림46 북미 반도체 장비 출하



자료: SEMI

■ 북미 반도체 장비 출하 증가율 성장세 지속

- 5월 북미 반도체 장비 출하 성장세 지속(53.1%,YoY)
- 북미 장비 출하는 반도체 시장을 6개월 정도 선행
- '20년 하반기 이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며 세계 반도체 시장의 긍정적 전망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

건설업(F)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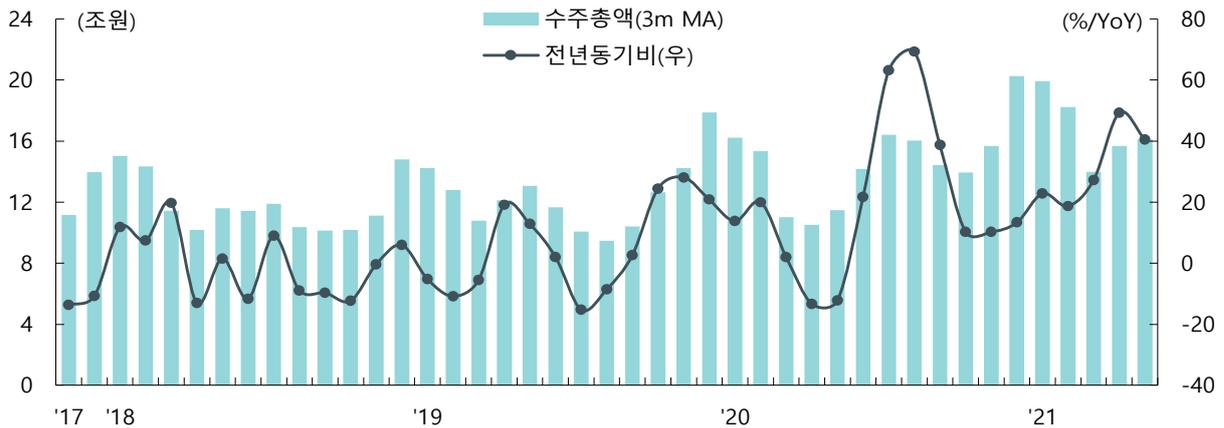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47 건설사 수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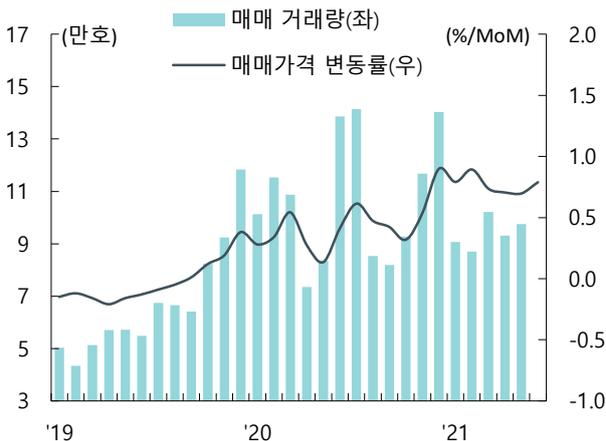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회피물량 몰리면서 건설수주액 큰 폭으로 증가

- 지난 2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되면서 해당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개발 물량이 대거 수주로 인식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수주가 큰 폭으로 확대
- 주택시장 활황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미분양이 1.5만호 수준으로 급감한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수요시장인 수도권에서도 신규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전년 수준 이상의 수주가 기대

그림48 주택 매매가격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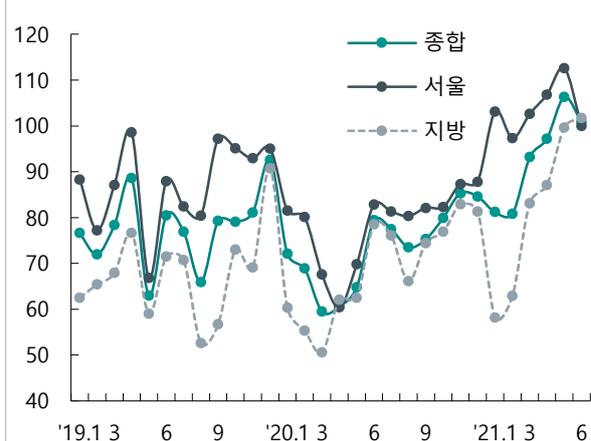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 수도권 중심의 가격 상승세 이어지는 중

-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선언 이후 노후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세 견인
- 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2.5%가량 감소했으나 이는 통계적 반락으로 거래 역시 활발한 상황

그림49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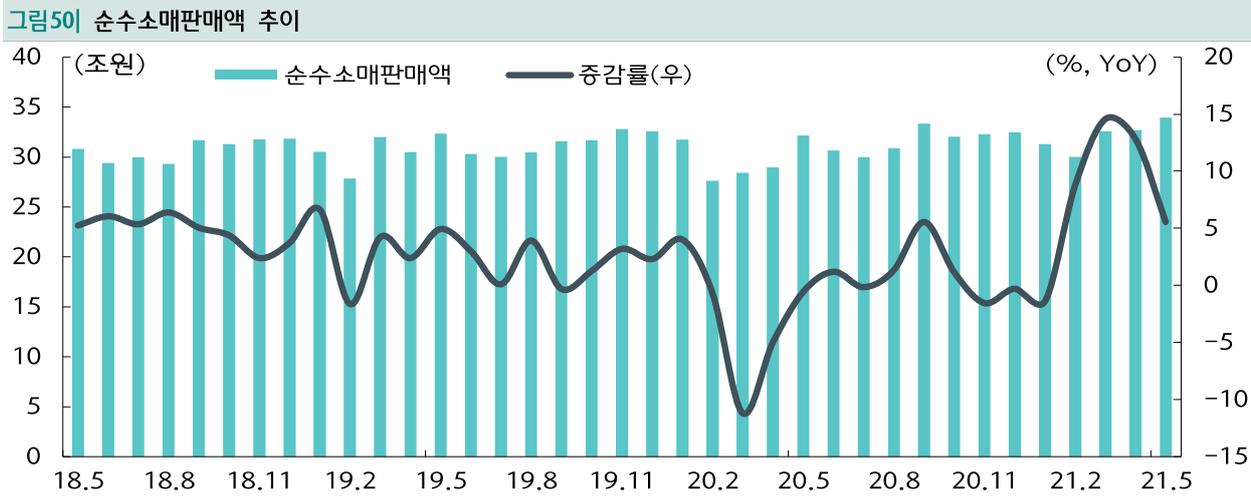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전국에 걸쳐 건설사 체감경기는 양호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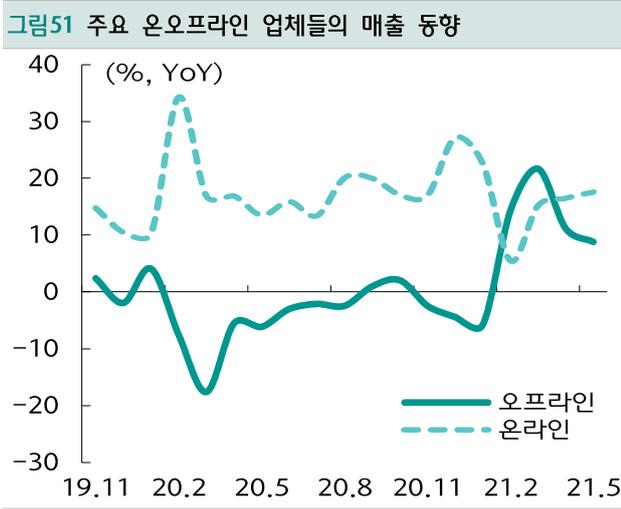
- 전국적인 부동산시장 활황으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 건설사의 체감경기도 크게 개선
- 건설 원자재 공급난은 당분간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체감경기는 향후 다소 저하될 전망

유통(G)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 **5월, 소비심리 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저효과의 축소로 성장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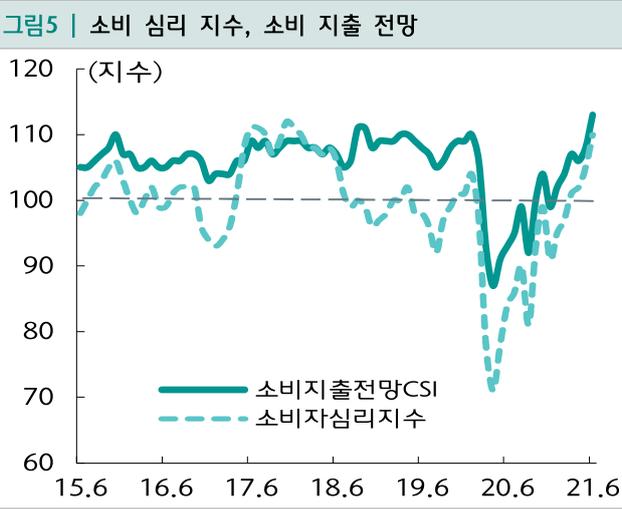
- 순수소매판매액(자동차 및 연료 판매액 제외)은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기저효과가 3~4월 대비 축소되면서 2021년 5월 전년동월대비 5.6%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둔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5월, 온·오프라인 모두 성장세**

- 오프라인 판매액은 기저효과, 소비심리 회복, 가정의 달 선물 수요로 5월 전년동월대비 8.8%의 성장률 기록
- 온라인은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5월에도 식품, 패션 성장으로 YoY 17.6% 성장



■ **6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세 지속**

- 코로나19 진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2021년 6월에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10, 소비자출전망CSI는 113을 기록
- 7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침체될 것으로 판단